

변화와 도약 신뢰 열린소통

LBI

LOOK BEY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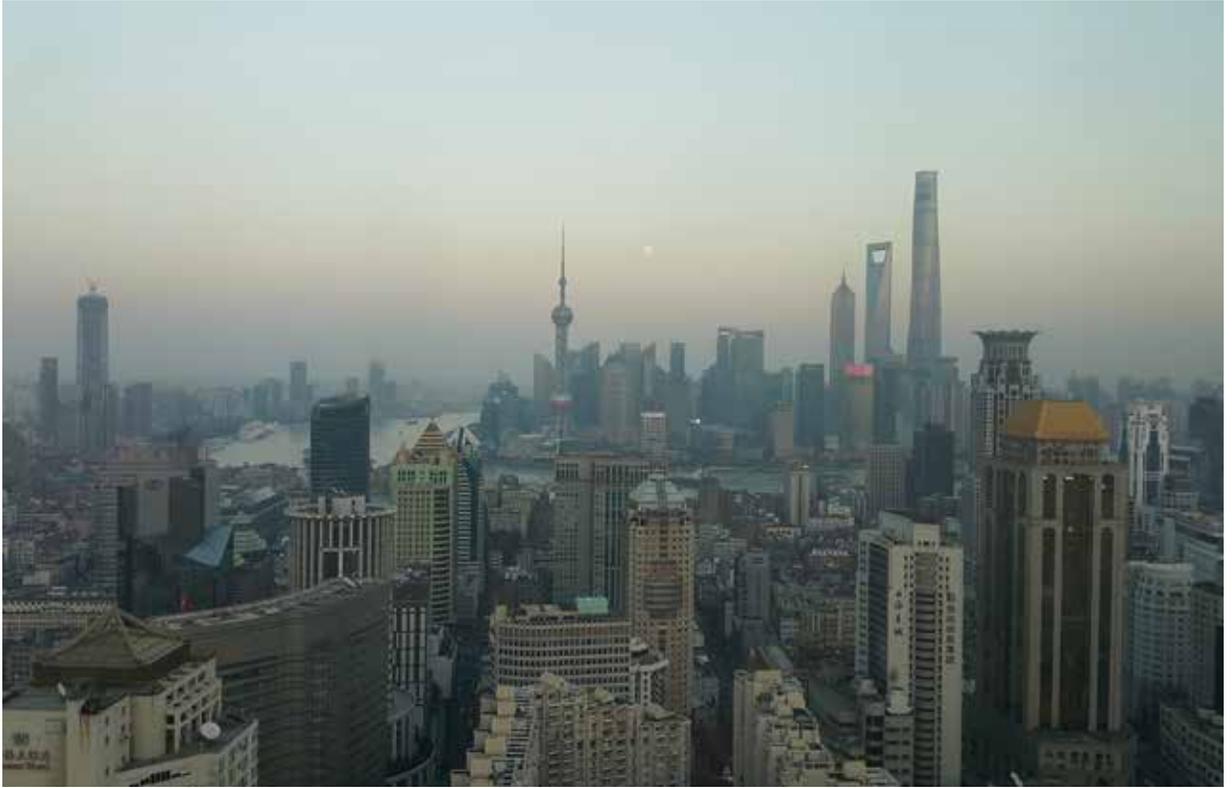
CONTENTS

LBI News

Portfolio News

New Portfolio

Column



LB 상해법인 사무실에서 바라본 2015년 1월의 황포강(黃浦江)

(사진 CBI 그룹 정민철 부장)

C O N T E N T S

LBI News	04
Portfolio News	07
New Portfolio	11
Column	14

Top 30 foreign VCs in China, 2014

01

LBI NEWS

2년 연속 중국최고의 외국 벤처캐피탈 30위내 선정



2014年中国最佳外商投资VC Top 30		
1		LB인베스트먼트
2		IDG资本
3		明哲创投
4		矩阵创投
5		软银中国资本



23		迪诺资本
24		红点创投
25		LB인베스트먼트
26		lantern 创投
27		搜狗资本



LB인베스트먼트는 중국 벤처 투자 전문 미디어인 차이나 벤처(China Venture)가 매년 발표하는 VC Awards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중국 최고의 외국 벤처 캐피탈 Top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국 VC 전문 평가기관인 Zero2IPO의 중국 내 '50대 주요 해외VC'에 선정된 것과 함께 그 의미를 더하며, 중국 내에서 한국계 VC인 LB인베스트먼트의 그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30위권내 한국계 VC로는 LB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LB인베스트먼트는 중국 사무소 설립 후 현재까지 중국팀 (심사역 6명)에서 2개 펀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력하는 투자분야는 TMT, 신형소비품, 과학기술문화 및 첨단장비제조업 등으로서 스타트업부터 그로스단계까지를 커버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내 LB인베스트먼트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Top 30 VC in China
2년 연속 30위내에 선정
중국내 LB의 성장성확인
- 6Rooms
M&A를 통한 회수
3년간 약 4배의 투자수익
- 휴젤, 파버나인
IRR 각 103.8%, 15.7%
- New Face
Marshall Yang
홍콩과학기술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중국투자, 연이은 M&A 통한 성공적 회수

LB인베스트먼트, 투자업체 6Rooms 통해 4배 수익 실현

LB인베스트먼트의 중국 투자기업인 '6Rooms'가 최근 중국 상장기업에 합병되었다.

합병기업은 중국 차스닥(ChiNext) 상장기업인 송성연예(SZ:300144)이며, 합병가치는 약26억 위안(약 4억 1,700만 달러)이고 '북경육간방과기유한공사'(이하 "6.cn")의 지분 100%가 인수된다.



2012년 상반기에 57억원을 투자한 후, 3년만에 약 4배의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2013년 Baidu에 2개 투자업체를 합병시킨데 이어 중국에서 이루어진 세번째의 합병으로 기록되었다.

"6.cn"은 중국 최대의 동영상 SNS사이트이자 실시간 인터넷방송국으로 현재 5만명이 넘는 개인방송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일평균 2만여개의 개인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1일 총 방송시간은 3만시간에 달하고 있다.

박기호 VC부문 대표는 "지난 4~5년전 투자한 중국기업들이 성장해 성공적인 회수로 이어지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 벤처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B의 중국투자 성공사례는 PPS(인터넷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UUCUN(모바일 앱 마켓 솔루션), MakePolo.com(전자상거래), LewaTek(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용 OS 및 관련 서비스), China Crystal New Material(합성운모 파우더)등이 있다.

한편 LB Investment는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Zero2IPO가 선정한 중국내 '50대 주요 해외VC' '2014년 China Ventures가 발표하는 중국내 해외 VC' 중 25위에 선정된 바 있다.

LB인베스트먼트, 국내에서도 활발한 회수 성과 기록

휴젤·파버나인 등 돋보이는 회수 실적

LB인베스트먼트의 국내 투자회사인 휴젤과 파버나인의 회수가 완료되었다. 특히 휴젤의 IRR이 103.8%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휴젤은 보툴리눔 독소의 생물학적 제제인 '보툴렉스' 일명 보톡스라는 제품을 개발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함께 국내 보톡스 시장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여섯번째로 'A형 보툴리눔 독신'의 제품 개발에 성공해 글로벌 20여개 시장에 공급 중이다. 휴젤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3% 증가했으며, 동기 간 영업이익은 33.7%, 당기순이익 79.9% 늘어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3년 12월에 투자하여 약 1년 6

개월만에 감작 회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파버나인의 회수도 1분기에 마무리되었다. 1989년 설립된 파버나인은 고가의 HD(고화질) 대형 TV 및 냉장고, 의료기기 외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특정공법을 통해 알루미늄 표면을 가공,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삼성전자 협력사로 등록된 후 2014년 2월 삼성전자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0년에 파버나인에 투자하여 약 5년만에 약 15.7%의 IRR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회수를 완료했다.

New Face



Marshall Yang

지난 2월 LB인베스트먼트 상해법인인 Marshall Yang을 신규 인력으로 영입하였다.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으로, LB인베스트먼트 상해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인연을 바탕으로 회사에 정식 입사하게 되었다. LB상해법인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MentorTech Ventures에서 2012년부터 2년반동안 Analyst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Marshall은 "LB가 중국내에서 최고의 V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Marshall의 패기 넘치는 에너지로 참여할 중국투자를 기대해 본다.

"I want to help LB to become the top VC brand in China, so that when the most motivated and experienced Chinese entrepreneurs think about VC funding, they first think of LB. To accomplish that I'm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 hottest startups in China so LB can invest in them. Our brand equity will appreciate as these companies grow into billion dollar companies."

에이티젠, “엔케이 뷰 키트로 글로벌 바이오기업 도약”



“엔케이 뷰 키트(NK Vue Kit) 등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의 세계 판매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박상우 에이티젠 대표이사(46)는 11일 “최근 엔케이 뷰 키트에 대한 병원들의 반응이 좋다”며 “공급처가 크게 늘고 있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설립된 에이티젠은 유전자와 단백질 시약 등을 주로 개발해 온 바이오기업이다.

회사의 주력제품인 엔케이 뷰 키트도 유전자와 단백질 시약 등의 개발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제품은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NK(Natural Killer)세포의 활성성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키트다. NK세포의 활성성이 낮으면 암과 같은 중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는데 엔케이 뷰 키트로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성을 손쉽게 측정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현재 40개 수준인 국내 공급 병원 숫자가 올해 하반기에는 200여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제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NK세포의 활성성을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시중 병원에서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며 “엔케이 뷰 키트가 개발된 이후에 검사방법과 시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NK세포 활성성 측정이 질병 예방과 진단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품은 현재 전 세계 50여개국에 특허가 출원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중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병원 영업망이 좋은 광동제약과 제휴를 맺고 국내 병원에 공동으로 엔케이 뷰 키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략)

박 대표는 “계속 인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한국 직원만 100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나는 인력에 발 맞춰 사무실도 확장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라며 “인재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 제품 판매 등 나머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창업 당시부터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부모가 되기도 했다”며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회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3-11 아시아경제

02

PORTFOLIO NEWS

- 에이티젠
NK Vue Kit 공급처 증가
세계 50여개국 특허보유
- Youjia Mica
대만증시에서 국내 코스닥 상장으로
인공운모 세계 1위
- 아이큐어
170억 신규투자 유치
코스맥스와 합작회사 설립
- 판도라 TV
월평균 사용자 2000만명이상 보유
스팩을 통한 코스닥 상장 계획
- 강스템바이오텍
'퓨어시스템', 대응제약 판권계약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 완료예정

中 요자마이카, 연내 코스닥 상장



▲ Sheet Mica

방향을 틀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프리IPO(기업공개) 성격으로 산업은행에서 300억원을 투자 받았다. 시가총액 3000억~4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진주광택 안료의 주재료인 합성운모를 제조하

중국 합성운모(진주광택 안료 주재료) 제조업체인 유자마이카(Youjia Pearlescent Mica)가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이 회사는 당초 대만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코스닥으로

는 회사로 매출액(2013년 기준) 393억원에 순이익이 172억원 정도로 이익률이 높다. 지난해 매출은 500억원대에 순이익도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운모 제조 분야에서는 규모가 세계 1위로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합성운모는 차량 코팅제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진주광택 안료의 원료다.

2012년 이 회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 LB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상장을 통해 성공적인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VC 가운데 중국 투자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LB인베스트먼트가 중국 기업을 국내에 상장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03-26 매일경제

아이큐어, 해외 시장 진출에 청신호

바이오 제약과 화장품 전문기업 아이큐어(대표이사 최영권)가 5개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으며 해외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이큐어는 지난 4월 6일 5개 투자기관에서 글로벌제약펀드 17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 최신cGMP 생산기반시설 확장할 계획"이라며 "임상 1상 완료와 함께 2015년 임상3상이 진행되어 세계 최초의 ORIGINAL 의약품으로 개발되는 도넬페질 치매패치, 파킨슨 패치 등의 제품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큐어는 하이드로겔 분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코스맥스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을 완료했고 지난 3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합작회사는

하이드로겔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 개척과 함께 시장 주도적 사업자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을 통해 출시된 제품들이 연이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고객사에게 큰 신뢰를 얻으며 매출이 급증했다. 스킨케어와 마스크팩 제품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난 3월 서초동으로 기술연구원을 확장, 이전했으며 향후 R&D분야의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아이큐어 관계자는 "제약 및 화장품 분야의 세계시장 개척과 cGMP 공장증설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2015-04-10 전자신문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판도라티비'

세계 최초로 유튜브보다 먼저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내놓은 국내 기업이 있다. UCC 동영상을 제공하며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 제공업체로 자리 잡은 코넥스 상장 기업 '판도라티비'가 주인공이다.

판도라티비는 국내 동영상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수십 년간 '동영상 공유 사업'이라는 한 우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업력과 독보적 기술로 업계에서 인정받는다.

월 평균 유저수 2000만명 이상 보유한 판도라티비는 고화질 라이브 생중계 서비스, 4K UHD영상 지원을 위한 플레이어 고도화 작업도 한창이다. 글로벌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세계적 인지도와 사용성을 인정받은 KM플레이어도 주력 사업 모델 중 하나다. KM플레이어는 국내를 벗어나 세계 230여 개국 36개 언어를 지원하는 수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동영상 인코딩, 트랜스코딩, 콘텐츠 저장 및 전송하는 캐싱(caching)기술 등 B2B 솔루션 분야도 업계 선두다. 그밖에 1인 미디어 지원 사업 아이엠프 등이 미래 성장 동력이다.

TV 중심 미디어 소비 습관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환되면서 모바일 앱광고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판도라티비는 엔스크린(N-Screen) 수요자가 증가하며 모바일, 네트워크 광고 매출도 늘어나, 모바일앱을 통한 광고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중 동영상 매체로는 유일하게 광고매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판도라티비는 코넥스 기업 최초로 스펙(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7월 코스닥 상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진출 가속화와 사업 다각화가 목표다.

[인터뷰] 김경익 판도라티비 대표

“모바일 시대 소비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비디오 동영상이 될 것 입니다. 판도라티비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국내 1인 동영상 미디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김경익 판도라티비 대표는 국내 토종 동영상 업체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다. 동영상 콘텐츠와 서비스 애정도 남달랐다.

김 대표는 향후 판도라티비가 주력할 잠재력 높은 사업으로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꼽았다. 동영상 1인 창작자를 위한 소셜 채널이나 앱을 만드는 '아이엠프' 이 대표적 서비스다.

김 대표는 “아이엠프를 운영하는 사용자에게 광고 수익과 이용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계속해서 1인 미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내겠다”며 “지금까지 여러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접할 수 있었던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개인 플랫폼화 해 차별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콘텐츠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믿음도 컸다. 한류를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 바로 문화 콘텐츠라는 확신이다.

김 대표는 “판도라티비는 무역의 날에 상을 받을 정도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토종 수출 기업”이라며 “원가가 들지 않는 콘텐츠, 광고 기반 사업으로 올해도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4 전자신문

강스템바이오텍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대웅제약 판권계약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벤처인 (주)강스템바이오텍(강경선 대표)이 최근 제약회사인 (주)대웅제약(이종욱 대표)과 제대혈 유래 동종줄기세포치료제인 '퓨어스템'의 국내외 판권 및 공동개발 계약을 진행해 화제다.

대웅제약의 이번 판권계약은 아직 임상 연구 중에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국내 제약사가 먼저 판권을 선점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강경선 교수가 대표이사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기업이다. 아토피피부염이나 크론병 등 난치병으로 알려진 자가면역질환들에 대한 치료제인 '퓨어스템'을 연구, 임상승인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이번에 대웅제약이 판권계약을 맺은 치료제는 제대혈 유래 동종줄기세포치료제인 '퓨어스템'이다. 퓨어스템은 강스템바이오텍의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로 개발한

치료제로 현재 '퓨어스템-에이디주(아토피피부염)'와 '퓨어스템-시디주(크론병)'는 임상 1/2a상, '퓨어스템-알에이주(류마티스관절염)'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강스템바이오텍의 후속 적응증 연구개발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퓨어스템 제품 출시 후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판매하게 된다.

강스템바이오텍 강경선 대표이사는 "제약사가 바이오벤처와 기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효능이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웅제약과의 전략적 제휴가 바이오벤처의 더 큰 성장과 세계적인 수준의 줄기세포 분리 및 대량배양 기술 발달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대웅제약 측은 이번 계약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성장인자 및 유전자 도입기술 등의 핵심역량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기관, 병원, 기업들과의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선도적 세포치료제 개발 및 재생의료 제품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전했다.

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퓨어스템-에이디주'의 임상1/2a상이 완료 예정에 있으며, 후기 임상에 진입해 오는 2017년 제품 시판을 목표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03-23 디지털타임즈

글로벌텍스프리

- **회사명** 글로벌텍스프리
- **설립일** 2005.12.30
- **투자분야** B2C/Service
- **사업분야** 텍스리펀서비스제공
- **대표이사** 강진원
- **홈페이지** www.global-taxfree.com

GLOBAL TAX FREE

글로벌텍스프리는 국내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에게 Tax-refund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1위의 회사입니다. 당사는 2005년에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Tax-refund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및 일본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의 빠른 증가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텍스프리는 엔에이치스팩3호와 합병청구를 하여, 한국거래소에서 합병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중국 최대 카드사인 유니온페이카드와 손을 잡았다.

하이셀은 자회사 글로벌텍스프리(GTF)가 중국 최대 카드사인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UnionPay-銀聯)의 회원사 자격을 획득하고, 유니온페이카드를 통한 텍스리펀드 서비스를 3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GTF는 금번 유니온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타 브랜드 카드사와 차별화 한 '익일 환급서비스'를 시행하여 유니온페이카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이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니온페이카드를 통한 편리한 환급수단이 추가돼 요커들의 환급 신청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3-02 해럴드경제

03

NEW PORTFOLIO

03

NEW PORTFOLIO

채널브리즈

- 회사명 채널브리즈
- 설립일 2010.11.26
- 투자분야 SW/Contents
- 사업분야 모바일 서비스 '직방'
- 대표이사 안성우
- 홈페이지 www.chbreeze.com



채널브리즈는 2010년 12월 설립된 모바일 서비스 회사입니다. 안성우 대표는 사업초기 소셜커머스 '포스트딜' 을 서비스했지만, 시장환경이 변화하여 사업의 성장성에 한계에 직면하자 '직방' 이라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 빠르게 피봇(Pivot)하였습니다. '직방' 은 2012년 1월부터 서비스하여, 약 1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모바일 서비스로서 시장 1위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직방' 이라는 서비스는 모바일 영역에서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시장을 개척하였고, 모바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채널브리즈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채널브리즈는 향후 모바일 부동산 플랫폼으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채널브리즈 '직방',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5 생활서비스 분야 수상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5' 시상식이 9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채널브리즈의 '직방' 은 오피스텔, 원룸, 투룸 등 전·월세 정보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부동산 앱으로, 지도를 기반으로 주거 지역, 가격, 거주 조건 등을 설정하면 사진과 함께 상세한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 (후략)

비트패킹컴퍼니

- **회사명** 비트패킹컴퍼니
- **투자분야** SW/Contents
- **대표이사** 박수만
- **설립일** 2013.04.25
- **사업분야** 스트리밍 라디오(음악) 모바일 서비스 BEAT
- **홈페이지** www.beatpacking.com



국내 최초 스트리밍 라디오 모바일앱 BEAT. 무료로 다양한 50여개의 채널을 청취할 수 있으며 Hot 200 K-Pop, 클래식, EDM과 같은 장르별 채널과 유명 가수가 직접 선곡하고 나레이션을 들려주는 스타 채널, 배철수의 음악캠프와 같은 라디오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미투데이 창업 및 밴드를 기획한 박수만 대표가 2013년 창업한 유망 스타트업으로서 BEAT 앱은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접 선곡하여 월정액제 서비스를 듣는 적극적 사용자층은 아니지만 라디오처럼 선곡이 된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 고객층을 타겟합니다.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이 커지는 추세에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종적으로 음악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광고 모델 도입을 통해 유료 월정액이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가치를 전달합니다. 해외 유사 스트리밍 서비스인 판도라, 스포티파이와 같은 대형 서비스로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비트패킹컴퍼니, 스트리밍 라디오 '비트' 회원 200만 돌파

비트패킹컴퍼니(대표 박수만)는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 '비트' 가 출시 11개월 만에 200만 회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비트는 선곡 고민 없이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라디오를 중심으로 산다라박, 정용화, 선우정아 등 유명 아티스트와 음악 전문가들이 DJ와 큐레이터로 참여해 양질의 음악을 제공한다.

박수만 사장은 "더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편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더 많은 음악제작자가 음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음악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하겠다" 고 말했다.

2015-02-12 전자신문

04

COLUMN

GDC 참관기

(Game Developers Conference)



정경인 부장 (VC/SME2)

정경인 부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010년 LB인베스트먼트에 입사하여 현재 게임/모바일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으로는 네시삼십삼분, 엔터테인먼트, 채널브리즈 (“직방” 앱 개발사) 등이 있습니다.

2015년 3월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에 제가 투자했던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네시삼십삼분” 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GDC는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로, 본래의 취지는 게임 개발자들이 모여 관련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고, 개발자들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게임사들이 모이다보니 사업관련 미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업관계자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관계자들도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게임산업의 트렌드_모바일, VR, 인디게임



▲ VR기기를 착용하고 슈팅게임을 하는 모습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다보니 미국 게임산업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크게는 미국도 역시 ‘모바일 게임’, 두번째는 ‘VR (Virtual Reality)’, 세번째는 ‘인디게임’ 이 주요 키워드라고 생각됩니다.

약 100여개의 세미나 중에서 ‘모바일게임’ 관련 강연이 50여종, ‘VR’ 관련 강연이 17여종, ‘인디게임’ 관련 강연이 20여종인 것만 보아도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국시장도 모바일 게임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VR도 콘텐츠 제작사들의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놀랐습니다.

어쩌면 빠른 시간내에 VR기기를 착용하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 엔진사들 사이의 뜨거운 경쟁



◀ 엔진 회사의 전시장들

모바일게임 분야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게임들을 개발하는 중에 있었고,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게임엔진들 사이의 경쟁이었습니다. 기존 온라인 게임에서는 'Unreal Engine' 이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에서는 'Unity Engine' 이 급부상함에 따라 최근에는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으로도 치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당일 행사장에 차려진 각 엔진사의 전시장 크기만으로도 그 경쟁의 열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Tencent Roadshow를 통한 중국 시장의 성장성과 규모 체감

참석한 여러 모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중국 최고의 게임회사인 Tencent Roadshow 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두 가지는, Tencent가 미국에서 개최한 첫번째 Roadshow였다는 점과 한국 게임산업에서는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encent가 미국에는 다소 겸손한(?) 태도로 미국시장에 자신을 소개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시장 또한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Tencent의 관심은 미국 진출보다는 미국게임을 중국시장에 수입하는 것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중국을 신경쓰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모임에 참가하는 내내 중국 시장의 성장성과 규모를 먼 미국땅에서 또 한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 Tencent 행사장에서

국내 개발사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 확인

이 외에도 Amazon, Google과 같은 플랫폼 담당자들과 해외 개발사들을 만나며, 게임과 게임산업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개발사에 투자하고 있는 VC로서 국내 개발사들이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기대도 같이 안고 오게 되었고,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GDC에서 게임산업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사진 정경인 부장)



LBInvestment

korea(Seoul)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3층
TEL 82.2.3467.0500
FAX 82.2.3467.0530

China(Shanghai)

Huamin Empire 25-e
726 Yanan Westeroad, shanghai, china
TEL 86.21.6252.0022.205
FAX 86.21.6210.6749

발행인 구본천 **통권** 제46호 **발행일** 2015년 4월

기획/편집 김민지, 조은정, 이영란, 이혜민

발행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3층

TEL 02.3467.0500 **FAX** 02.3467.0530

www.lbinvestment.com